

소방 대피 훈련 일지

일 시	2026년 8월 11일 화요일
참 가 인 원	15명(교사 5명, 영아 10명)
화재경보방법	화재경보음(사이렌 소리)
총 대피 시간	5분(09:55 ~ 10:00)
대 피 경 로	각반 보육실에서 베란다 비상구를 지나 집결지인 공원의자에 집결
훈 련 내 용 (상황설정)	주방 콘센트 과열로 인해 불이 났다. “불이야”소리가 날 때 안전하게 대피한다.
교사의 역할	영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준 비 물	화재표시(불모양), 카메라, 비상약품, 사이렌소리벨, 손수건
사 진	   
평 가	오전 간식시간이 가까워 화장실에서 순서대로 손을 씻고 나온 영아들이 각각 반으로 들어가 앉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귀가 찢어찌러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영아들이 유희실로 나오기 시작하였다. 가장 어린 꿈 반 영아를 교사가 한 명을 안고 한 명을 손을 잡고, 키움 반 영아들은 좀 더 익숙한 발걸음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유희실 베란다로 모였다. 주방 콘센트 과열로 불이 났다는 외치는 소리로 영아들도 함께 외쳤고 베란다로 영아들을 이동시켰다. 주임 교사의 선두지휘로 한 명씩 베란다 밖 풀밭으로 탈출을 행했다. 무더위 속에서도 비상인 이러한 대피상황에서 코와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을 잘 순응한 영아들이 무사히 최종 대피장소인 공원 벤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. 그 곳에서 모두 “도와주세요 119아저씨” 라고 외쳤고 휴~살았다”를 외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. 교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. 비상상황일 때는 반드시 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함을 매번 알려주고 있지만 매번 이야기해줘도 지나치지 않다.